

자유어순변이, 선형화 및 강력최소주의*

이정식
(원광대학교)

Lee, Jeong-Shik. 2012. Free Word Order Variation, Linearization, and Strong Minimalist Thesis. *The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2). 81-104. This paper observes true optionality from Korean arising from free word order variation and discusses how this optionality can be accommodated within the recent strong minimalist thesis. I claim that the [+EPP] feature of a head can be satisfied in more than one way, thereby resulting in free word order variation. This allows two constituents that differ in size to satisfy the feature, with equal cost. The discussion is based on a particular view: Korean is underlyingly SVO and linearization proceeds via a mechanism like LCA. I offer arguments for the SVO hypothesis and against the SOV hypothesis in the course of deriving free word order variation observed. Thus the results of the paper support Kayne's (1994) universal Spec-head-complement order hypothesis and help eliminate the head-parameter in the computation.

주제어(Key Words): 자유어순변이(free word order variation), 진성 수의성(true optionality), 핵매개변인(head-parameter), 핵어선(head-final), 핵어말(head-initial) 선형화(linearization)

1. 서론

본 논문은 국어(Korean)의 (1a)와 (1b)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자유어순변이(free word order variation)에서 서로 의미차이가 없는 진성 수의성(true optionality)을 새로이 관찰하고, 최근의 강력최소주의(strong minimalism) 관점에서 이 현상이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본 다음, 이 현상을 최소주의의 틀 내에서 여하히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

* 이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논문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다.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7-A00297).

으로 한다.

- (1) a. 철수가 영희를 만나기는 만났어.
b.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만나기는.

아울러 논의의 과정에서 불가피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진성 수의성 현상을 보여주는 자유어순변이를 어떻게 도출하느냐의 문제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제 2 장에서는 위와 같은 진성 수의성이 최근의 최소주의의 이론적 체계에 제기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위의 (1a,b)와 같은 자료가 왜 흥미있는 논의거리가 되는지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간단히 진술하려고 한다. 제 3 장에서는 위의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자유어순변이를 도출하는 데 아직까지 국어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구구조에 대한 기존 인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려고 한다. 아울러 그 대안적인 구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요지는 국어의 기저구조는 전통적인 핵어말(head-final)이 아니라 핵어선(head-initial) 구조를 바탕으로 도출되어 선형화(linearization) 된다는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자유어순변이 도출을 예시하는데 있어서 SVO 가설을 채택할 때만 가능하고 SOV 가설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보인다. 제 5 장에서는 진성 수의성을 보여주는 국어의 다른 몇 예들을 더 발굴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최근의 최소주의 틀에서 진성 수의성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논하려고 한다. 마지막 제 7 장은 논문을 마무리한다.

2. 진성 수의성

Noam Chomsky가 주도해 온 생성문법은 그동안 반세기 넘게 부단한 발전을 거듭하며 90년도 초에 최소주의의 틀(minimalist framework)에 이르렀는데, 이 최소주의도 최근 주요한 몇 단계의 이론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더 진화하였다 (예, Chomsky 1995, 2000, 2001, 2004, 2005a, 2005b, 2006, with Hauser and Fitch 2002). 그리하여 최소주의는 급기야 강력최소주의 테제(Strong Minimalist Thesis)를 내포하게 되었다:

- (2) 언어는 언어능력이 만족시켜야 하는 집합부조건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이다.
(Language is an optimal solution to interface conditions that FL (faculty of language) must satisfy.)

그리고 최소주의는 그동안 아래 (3)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성 원리를 가정해 왔다:

- (3) 수의적(optionl)인 규칙은 오직 새로운 출력 효과를(output effects) 낳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Chomsky 2001: 34).

그래서 통사적 운용은 (3)에 따르면 결코 잉여적인 것일 수 없으며 반드시 표면상의 어떤 효과를 수반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Chomsky (2000, 2001)는 수의적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 자질, 즉 EPP-자질을 설정하였는데 (일명, 면끝자질, Edge Feature, EF), 이 자질은 위의 (3)의 진술과 관련하여 국면의 핵에 수의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면핵, 예를 들어, v^* 에 EPP-자질이 없거나 EPP-자질이 있는 두 경우가 생겨 이동하지 않는 경우와 이동하는 경우를 포착한다. 결국 해석상의 차이는, $v^*[-EPP]$ 와 $v^*[+EPP]$ 가 서로 다른 배변집합(Numeration)을 이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즉 수의적인 EPP-자질이 부여되면 접합부(interface)에서 반드시 해석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록 동일한 어휘항목들을 포함하더라도 EPP-자질의 유무에 따라 실제로 서로 다른 배변집합을 갖게 되어,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는 수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최근 최소주의 통사론 논의에 있어서 운용상의 수의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위에서처럼 수의성을 연산(computation) 체계에서 제거함으로써, 의미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자유변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출되었다.

한 때 아래 (4)에서 볼 수 있는 국어의 뒤섞기(scrambling)와 같은 수의적 현상으로 보이는 운용에 대하여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제시도 되었다 (예, Lee and Cho 2003, D.-W. Lee 2003):

- (4) a.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b. 영화를 철수가 만났어.

즉 위의 어순변이를 보이는 두 문장이 실은 해석상의 차이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중에 있는 목적어 *영화가*가 (4a)에서 초점과 관련하여 약한 해석을 받는데 반하여 문두로 이동한 (4b)에서 더 강한 해석을 받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b)의 *영화가*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언어에서 의미 차이가 없는 진성 수의성이 경험적으로 관찰이 되어 위와 같은 최소주의적 견해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관련된 논의로 Biberauer and Richards 2006, Richards 2008 참고). 실제로 국어에서도 앞 장 (1)의 자유어순변이가 보여주는 진성 수의성을 보았다. 이러한 어순변이는 우선 (현 단계의 논의의 목적상) 피상적으로 (5a)에서처럼 동사복합체 *만났어*의 좌향이동이나 또는 (5b)에서처럼 동사복합체 *만나기는*의 우향이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동의 결과 유도된 표면형들 간에 서로 의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4)의 뒤섞기 예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진

성 수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a.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만나기는 만났어.
 b. 철수가 영희를 만나기는 만났어 만나키는.

다시 말해서, 해석상으로 이 동사복합체의 이동에 따른 효과가 없으므로 (5a,b)의 동사복합체의 이동은 전혀 그 동기가 없는 것이다. 즉 관련된 핵에 EPP 자질을 동기 없이 설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 동안 가정되어온 (3)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성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저자의 좁은 안목으로, 위와 같은 국어의 진성 수의성을 논의한 선행 연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Yang (2010: 985)이 국어의 수의적 이동을, 예를 들어, 예외적 격표지 구문의 상승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Chomsky (2001: 34)에서처럼 이동에는 해석상의 효과를 (예, 초점, 강조 등) 수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6 장에서 국어의 진성 수의성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다. 이제 관련된 어순변이를 어떠한 선행화 원리로 유도해 내어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는데,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3. 국어의 구구조

3.1. 핵매개변인: 핵어말 또는 핵어선?

최근 언어 진화의 관점에서 발전, 제시된 최소주의의 새로운 노선상에서, 종래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은 그 내용물이 극소화되고 미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달리 말하여, 언어 설계에 있어서 언어 진화와 관련하여 Chomsky (2005b)가 제시한 유전적 요인, 소위 제 1 요인 (the First Factor: genetic endowment)으로 압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개념의 UG에서 축출된 원리들(principles)은 소위 제 3 요인 (the Third Factor: Principle not specific to the FL)에 귀착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UG에 포함되었던 매개변인(parameter)도 이제 UG 내에서 그리고 원리 내에서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Chomsky 2006, Boeckx 2008).

이러한 이론 발전의 흐름과 관련하여, 국어 통사론의 연구는 어순에 관하여 거의 아직도 핵매개변인(head parameter)이 UG의 성질이며 따라서 통사부 연산체계 내에서 이 매개변인이 확정되어 국어의 핵어말 특성이 나타난다는 1980년대의 Chomsky (1981)의 지배결속(GB) 이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논의 참고, 김용하 2011). 이제 위에 언급한 면모로 발전된 최소주의의 문법의 틀에서 핵매개변인이 연산체계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매개변인의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와 더불어 밀접하게 관련된 선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먼저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1a,b)와 같은 자유어순변이는 어떤 하나의 기저구조가 생성된 후에 관련된 요소의 이동에 의해 어순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선형화(linearization) 되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기저구조 생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논선을 밝힐 것이다. 즉, 이 기저구조가 아직까지 국어 통사론에서 과학적 검증 없이 오랫동안 가정되어 왔던 지정어-보어-핵 (spec-compl-head) 순서인 핵어말(head-final) 구조가 아니라 지정어-핵-보어 (spec-head-compl) 순서인 핵어선(head-first) 구조라는 것을 옹호할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전자를 SOV 가설, 후자를 SVO 가설이라 칭하겠다.¹⁾ 이러한 바탕위에 본 논문은 (1a,b)의 자유어순변이가 보여주는 진성 수의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자유어순변이가 제기하는 (3)의 경제성 원리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 해결의 큰 방향을 Biberauer and Richards(2006), Richards(2008)나 Yang(2010) 등이 허용하는 통사부의 미결정성(syntactic indeterminacy)에서 찾고자 한다. 요컨대 어떤 핵의 면끝자질이 만족되는 한 그 만족 시키는 통사적인 방법은 하나 이상일 수 있어 그 결과 자유어순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제 SVO 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본 연구는 (범어적으로) 핵어선이라는 선형화 관련 정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UG에 자리할 수 있느냐를 궁리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Richards(2008: 149-150)는 UG를 일률적으로 극소화하기 위해 핵어선이나 핵어말과 같은 선형화에 대한 정보가 협의 통사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Berwick & Chomsky 2008, Boeckx 2008 참고), 선형화는 결국 PF 접합부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기제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Richards가 핵매개변인 효과를 얻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병합(Merge)을 대칭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통사부에서 핵어선과 핵어말의 순서쌍들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PF에 이르는 접합부에서 둘 중 하나를 일괄적으로 지워내는 것이다.

그러나 Richards (2008)의 선형화 방법은 국어와 같이 기저어순이 핵어말 또는 달리 SOV로 알려진 언어에서 결국 PF에서 지워지게 될 핵어선 순서가 통사부에서 LF까지 의미적으로 동일한 핵어말 순서와 공존하는 잉여성을 대량으로 내포하고 있어서, 최소주의 정신에 잘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더욱, 경험적으로 아래의 예들에서 보듯이 국어의 모든 문장들이 다 Richards가 예측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핵어말은 아니다.

1) 엄격히 말하여 언제나 지정어-보어-핵 순서가 반드시 SOV, 지정어-핵-보어 순서가 반드시 SVO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 논문에서는 둘 사이의 자세한 차이의 구별은 차치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것이다.

- (6) a.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b. 철수가 만났어 영희를.
- (7) a. 철수가 만나기는 영희를 만났어.
 b. 철수가 만나기는 만났어 영희를.
- (8) a. 철수가 영희를 잡기는 잡았다 손을.
 b. 철수가 책을 사기는 샀다 세 권을.

위의 국어의 예들에서는 핵어선과 핵어말의 어순이 PF에서 여전히 공존하는 상태를 보여준다.²⁾ 앞으로의 논의에서 본 논문은 Richards의 매개변인 효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국어에는 잘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예들을 들어 더 살펴봄으로써 이와 차별화되는 선형화 방안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위의 Richards (2008)의 선형화 방법은 병합이 대칭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참고, Epstein et al. 1998: 152), 이와는 달리 병합이 비대칭적이라면 선형화에 필요한 위계적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ornstein 2009: 30-34 관련 논의 참고).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위의 Richards (2008)와는 달리 핵매개변인 없이 병합(Merge)과 이동(Move)에 의해 (범어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지정어-핵-보어의 비대칭적 성분통어 관계를 포함하는 위계적 기저구조가 구축되고 이 구조가 PF에서 Kayne (1994) 식의 선형화대응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 LCA)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선형화 된다고 본다 (Kayne 1994, 2011, Hornstein 2009). 앞으로 이러한 비교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기존의 국어 통사론 연구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점은 국어의 구조가 기저에서 핵어선이었다가 필요한 이동을 거쳐 전형적으로 핵어말 구조로 생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핵매개변인에 의해 통사부 연산체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UG의 극소화를 지향하는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어순에 대하여 핵매개변인에 의존해온 기존의 접근 방법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언어습득이 매개변인 이론에 의하여 잘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구심이 누적되었으며, 결국 매개변인이 UG 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Hornstein 2009: 164-167 관련 논의 및 여기에 소개된 문헌 참고). 국어의 어순과 관련한 선형화에 대한 본 논문의 입장은 병합과 이동에 의해 구축된 구조가 PF에서 선형화 될 때 지정어-핵-보어의 비대칭적 성분통어 관계를 포함하는 위계적 구조에서 LCA가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핵매개변인을 제거하여 UG의 극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최소주의 노선에도 잘 부합한다.³⁾

2) 위의 (8a,b)와 같은 예들은 특히 Biberauer, Holmberg and Roberts (2010: 3)의 소위 FOFC(the Final Over Final Constraint)에도 예외가 되는 것이다. *[BP [αP α γP] β]: 핵어말(head-final) 구절이 핵어선(head-first) 구절을 관할하는(dominate) 어순을 갖는 언어는 없다.

요컨대, 본 논문은 국어의 기저어순이 핵어선이라고 간주하며 (Koopman 2005, 이정식과 J.-S. Lee의 일련의 문헌 참고), 이러한 견해가 반드시 강력최소주의 테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Biberauer, Holmberg and Roberts 2010: 4의 관련 논의도 참고). 이제 아래에 계속되는 논의에서 현행의 SVO 기저어순 가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SOV 기저어순가설과 비교하여 그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3.2. 국어의 기저어순: SVO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1)에서와 같은 진성 수의성을 보이는 국어 자료를 새로이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 최소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구문의 어순 변이를 여하히 도출해 내느냐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본 논문이 채택하고자 하는 SVO 기저어순 가설과 기존의 SOV 기저어순 가설의 경험적인 비교를 내포한다. 이러한 비교는 국어의 문장이 SVO 기저어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이동을 거쳐 전형적으로 SOV의 성질을 지닌 어순을 갖게 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실제 SVO 기저어순 가설에 대한 논증들이 다양한 구문을 통하여 제시되었는데 (이정식과 J.-S. Lee의 일련의 문헌 참고)⁴⁾ 여기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은 구문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출발 방향을 더 확고히 하려고 한다. 먼저 다음 구문을 보자:

- (9) a. 철수가_i 자기_i/*_j 집에서 영화를_j 만나기는 만났어.
 b. 철수가_i 영화를_j 자기_i/_j 집에서 만나기는 만났어.
 c. 철수가_i 영화를_j 만나기는 자기_i/_j 집에서 만났어.

3) Fukui and Takano (1998)에서처럼 논리적으로 충분히 기저어순이 범어적으로 SOV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증, J.-S. Lee 2010a; 2012: fn 8 참고). 그러나 지구상의 자연언어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SOV 가설과 SVO 가설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기저구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 두 어순의 분포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영어를 예로 들어, 고대 영어가 SOV 어순이었으며 현대 영어가 SVO 어순이므로 기저어순이 SOV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전에 SOV가 현재 SVO로 바뀐 언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더욱 그동안 전형적으로 SOV 언어라고 간주되어 온 고대 영어나 Dutch/German 등의 언어들도 관점에 따라 그 기저어순이 SVO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 Zwart 1997, 감대익 2011 및 여기에 소개된 관련 문헌). 따라서 두 가설을 놓고 비교할 때 현대 언어학이 아직까지 확립한 기술적(technical), 이론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길이 남아있다. 즉 어느 가설이 얼마나 자유변이를 포함한 표면 어순을 언어학적으로 확립된 원리나 제약에 잘 부합되게 유도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4) 예를 들면, 장거리 대용사 결속, 부정격어 분포, 내포절 술어(복합제) 삭제, 우향전위(Right Dislocation), 좌/우측마디상승(Left/Right Node Raising), 동사반복, 극성 동사반복, 연쇄동사, 분리의문문 등을 포함하는 구문들이다.

위 (9b)에서 *영희*들이 이동하여 대용사 *자기*와 새로운 결속관계를 갖는다.
먼저 SOV 가설하에서 다음의 핵 골격구조를 가정할 때,

(10) C-T-v-V

(9c)의 어순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영희*를 *만나기*는이 하나의 구성소로 이동하는데, 이 경우 그 안의 *영희*들은 *자기*를 성분통어하지 못하게 된다.

(11) 철수가_i [*영희*를]_j 만나기_i] 자기_i/j 집에서 *영희*를 만나키는 만났어.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결속을 허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영희*들과 *만나기*는이 번갈아 가며 반복 이동을 거듭하여 (9c)의 어순을 유도해 낼 수는 있지만 아무런 동기도 없는 이동들일 뿐이다. 더욱 *만나기*는이 좌향 핵이동을 해야 하는데, 핵어말인 SOV 구조에서는 이 동사 복합체를 맞이할 핵이 좌측에는 없다. 부득이 *영희*들을 먼저 동사구 [*영희*를 만나기_i] 밖으로 이동시키고, 다음 [*영희*를 만나기_i]를 대용사의 좌측으로 구절 이동시키고, 다시 이동한 *영희*들을 [*영희*를 만나기_i]의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면 (9c)의 표면 어순을 가까스로 유도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이동들일 뿐이다.

반면 SVO 가설하에서 다음의 핵 골격구조를 가정할 때,⁵⁾

(12) C-Top-Foc-v-Mood-Asp-V

아래에 간단히 나타낸 (13)에서처럼 *영희*들과 *만나기*는이 각각 Spec, FocP와 EF를 가진 Foc 핵으로 별도로 이동할 수 있어서 별 문제 없이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언어에 나타나는 동사반복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동 분석에 의거해 *만나기*는이 *만났어*보다 상위에 있다고 본다, J.-S. Lee 2011a 참고):

(13) 철수가_i [FocP [*영희*를]_j] [Foc 만나기_i] [자기_i/j 집에서 *영희*를 만나키는 만났어]_i].

그래서 국어에서 SOV보다는 SVO 기본어순가설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며, 아래의 논의에서도 논증은 계속된다.

5) 이 구조 하에서 동사의 굴절을 포함한 자세한 도출의 예시는 여기서는 지면상 생략하고 이하의 논의에서는 필요한 도출만 요점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Koopman (2005)을 비롯하여 이정식과 J.-S. Lee의 일련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4. 자유어순변이 도출

이제 SVO 가설 하에서 위의 (9b,c)에 적용된 이동은 역시 아래에 반복된 (1a,b)의 도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

- (1) a.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b.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만나기는.

먼저 (1a)는, 이 가설 하에서 동사 만나와 목적어 영화가 서로 병합되어 동사구 [만나 영화]가 도출되고, 다시 동사 만나가 좌상향 이동한 후 형태론적으로 달리 반복되어 결국 만나기는 만났어가 유도된 다음, 동사 만나의 우측에 있던 목적어 영화가 최종적으로 상위의 Spec, FocP로 이동하여 (적당한 단계에서 주어 철수의 병합이 가해져서) 유도된다. 이때 만나기는 은 Focus 핵에 모이는 것으로 본다. 이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4) a. 만나- 영화
 b. 만났어 영화를
 c.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d.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e. 영화를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f.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한편 (1b)는 아래에서처럼 [영화를 만났어]가 상위의 Spec, FocP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다:

- (15) a. 만나- 영화
 b. 만났어 영화를
 c.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d.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e. [영화를 만났어]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f.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요컨대, Foc 핵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1a)의 유도를 위해서 영화를 (14e)에서 보듯이 단독으로 Fo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고, (1b)의 유도를 위해서는 (15e)에서 보듯이 [영화를 만났어]가 FocP의 지정어 자리로 동반이동(pied-piping)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이동은 (9)에서 본 것과 같은 결속현상을 가지고 검증해 봄으로써

경험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 (16) a. 철수가_i 영화를_j 만나기는 자기_{i/j} 집에서 만났어.
 a'. 철수가_i 영화를_j 자기_{i/j} 집에서 만나기는 만났어.
 b. 철수가_i 영화를_j 만났어 자기_{i/*j} 집에서 만나기는.

여기서 제시한 분석에 의해 (16a,b)는 아래와 같은 표시를 갖게 되는데, 결속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관련 예로 (9c, 11)의 논의 재참고):

- (17) a. 철수가_i [FocP [영화를]_j] [Foc 만나기는] [자기_{i/j} 집에서 영화를 만나키는 만났어]].
 b. 철수가_i [FocP [영화를] 만났어] [자기_{i/*j} 집에서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여기서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은 Foc 핵의 [+EPP] 자질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만족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 6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현 주장을 완결시키기 위해 이제 SOV 가설 하에서는 (1a,b)의 자유어순변이를 쉽사리 유도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일 때가 되었다. 이 가설 하에서는 (18)이 기본 구조 표시가 될 것이다 (Kang 1988):⁶⁾

- (18) 철수가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 만나-]있어

여기서 (1b)에서처럼 만나기와 만났어의 순서가 바뀌려면, (19b)에서처럼 하위 VP 내의 목적어 영화를 먼저 이 VP 밖으로 좌향 이동하여 나간 후, (19e)에서처럼 잉여소 [KiP 영화를 만나기]가 만났어의 우측으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가는 문장 종결어미 -어가 C에 있는 요소라면 CP에 우향 부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9) a.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 만나-]
 b. [VP 영화를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 만나-]
 c. [TP 철수가 [VP 영화를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 만나-]]-있]

6) 아래 표시에서 KiP는 동명사형 또는 명사화 어미 -ki의 구절 투사이다.

- d. [CP [TP 철수가 [VP 영화를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는 만나-]]-았-어]
- e. [CP [CP [TP 철수가 [VP 영화를 [VP t_{KiP} 만나-]]-았-어] [KiP [VP 영화를 만나-]기]는]]

그러나 이러한 좌우향 이동들은 실로 아무 동기나 방향성도 없다. 달리, 동사복합체 *만났어*가 적당한 지점으로 좌향이동한 후 하위 VP 내의 목적어 *영화를*이 이 VP 밖으로 이 동사복합체보다 왼쪽으로 상향 이동하여 나간다면 원하는 어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SOV 가설 하에서 이 동사복합체가 핵이동할 수 있는 핵이 좌측에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논의로 이정식 2008, J.-S. Lee 2011a 참고).

마지막으로 잠시 논의하는 동사반복구문에 대한 흥미있는 분석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한다. 즉, SOV 가설하에서, 논의상 (1a)를 예를 들어, 아래에 그 도출을 예시한 Jo (2004)의 분석이다:

- (20) a. [FP [VP 철수가 영화를 만나-]i-기 [F -는] [MP [TP [VP 철수가 영화를 만나-]i-았-어]]]
- b. [FP [VP 철수가 영화를 만나-]i-기 [F -는] [MP [TP [VP 철수가 영화를 만나-]i-았-어]]]
- c. [FP [VP 철수가 영화를 만나-]i-기 [F -는] [MP [TP [VP 철수가 영화를 만나-]i-았-어]]]

위의 구조에서 동사구 [VP 철수가 영화를 만나-]가 Spec, FP에 (아마도, FocP) 그대로 복사되고 하위의 VP 복사물에서 차별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져 세 개의 변이형들이 유도된다. 그러나 여기서 명사화 요소 -가 구속형태소인 동사이근 *만나*의 형태론적 결함을 보완해주기 위해 붙는다는 것은 (Kang 1988) 이해가 가나, SOV 가설 하에서 FP의 핵인 F는 실제로는 핵어말 위치에 와야 하므로 -는은 실제로 동사복합체에 붙게 되어 엉뚱하게 **만났어*는을 유도해내게 되며, 의도와는 달리 핵어선 위치에는 올 수 없으므로 (20a)에서처럼 F의 -는이 *만나*가에 붙을 수는 없다. 요컨대, 동사구 이동 제안은 기발하기는 하나 원하는 어순을 얻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20a)와 같은 도출을 묵인한다하더라도 *만났기*는과 *만났어*가 바뀌는 (1b)와 같은 어순은 위의 분석으로는 도출해 낼 수 없다.

이상에서 국어 (1a,b)의 자유어순변이를 설명하는데 SVO 가설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른 의문은, 위에서 하나의 [+EPP] 자질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주장이 언어 간에 얼마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것이다. 제 2 장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실제 다른 언어에서도 의미 차이가 없는 진성 수의성이 관찰 되어 (예, Dutch,

German, Afrikaans, Russian, Arabic, Bangla, Imbabura Quechua) Biberauer and Richards (2006)와 Richards (2008)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아래에 소개한 것은 전자 (2006:(3))의 Afrikaans의 예이다:

- (21) a. Ek weet dat sy het dikwels Chopin gespeel.
 I know that she has often Chopin played
 b. Ek weet dat sy dikwels Chopin gespeel het.
 I know that she often Chopin played has

Biberauer and Richards (2006:(18a,b), 이하 B&R)는 위의 자유어순변이에 대해 아래에 표시된 분석을 제공하였다:

- (22) a. Ek weet dat [TP sy het [vP t_{sy} dikwels Chopin gespeel]]
 b. Ek weet dat [TP [vP sy dikwels Chopin gespeel] het t_{vP}].

위의 (21a)에서는 (22a)에서처럼 내포절 주어 *sy*가 (내포절의 Spec, vP에서) Spec, TP로 상승이 일어난 것이며, (21b)에서는 (22b)에서처럼 vP 전체가 내포절의 Spec, TP로 동반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달리 말하여, T의 [+EPP] 자질이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B&R는 전자의 경우를 지정어상승(Spec-raising)으로, 후자의 경우를 지정어동반이동(Spec-piedpiping)으로 불렀다. 이를 따른다면, 국어에서도 (14e)는 지정어상승, (15e)는 지정어동반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⁷⁾

위의 (1a,b)의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며 어순이 다른 국어의 예들을 더 관찰할 수 있다:

- (23) a. 철수가 만나기는 만났어 영희를.
 b. 철수가 만나기는 영희를 만났어.
 c. 철수가 만났어 영희를 만나기는.

SVO 가설 하에서 위 (23a)의 예는 아래 (24)에서처럼 도출될 것이다.

7) 국어의 내포절에서는, 주절과는 달리, 항상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는 SOV 어순을 지킨다. 필자가 아는 한 이러한 성질은 Kalmyk, Tsez 등을 포함한 알타이 계통의 언어에 공통된 현상이다. 현 SVO 가설에서 이러한 내포절의 술어말 특성은 목적어가 Spec, vP로, vP가 Spec, TP로 이어 TP가 Spec, CP 자리까지 지정어(동반)이동이 말아가며(roll up) 계속 적용됨으로써 포착될 수 있다 (관련된 논의로 J.-S. Lee 2010b, 2012 참고).

- (24) a. 영화를 만나- 영화
- b. 만났어 영화를 만나- 영화
- c.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 만나- 영화
- d. 철수가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 만나- 영화

위의 도출에서 보다시피, 동사복합체 *만났어*가 핵이동에 의하여 형성되고, 목적어 *영화를*은 동사 *만나*의 Spec, VP에 머물러 있다.⁸⁾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23a)가 (1a,b)의 문장들처럼 진성 수의성을 보이는 나의 여부를 떠나서, 이 예가 SOV 가설에 커다란 문제를 안겨주며 반면 SVO 가설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논의상 (23a)와 같은 예에서 문말의 목적어를 우향전치 요소라고 부르겠다. SOV 가설 하에서 이 우향전치 요소는 통상 단일절 분석에서는 우향이동이나 우측기저생성에 의해 문말에 위치한다고 보며 (관련논의 이정훈 2011 참고), 쌍절분석에서는 이 요소가 후속절에서 문두로 이동하여 나온 후 이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생략되어 유도된다고 보는 (Chung 2009, 2010) 두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단일절 분석은, 앞에서 논의한 (9a)의 예에서 목적어 우향이동이나 우측기저생성에 의해 아래 (25a)의 예를 얻을 것이다.

- (25) a. 철수가i 자기i/*j 집에서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j.
- b. [[철수가i 자기i/*j 집에서 tj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j].

그러나 (25b)에서 보듯이 문말의 목적어가 이제 대용어 자기보다 상위에 위치하므로 결속을 그릇되게 예측하게 된다.⁹⁾

8) 그런데 (23a)의 예가 (1a,b)의 문장들과 비교하여 진성 수의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즉, *영화를*에 오는 초점(focus)에 미세하게나마 강약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a,b)에서는 *영화를*이 강한 초점을 지니지만 (23a)에서는 약한 것처럼 보인다. 비슷하게 화자에 따라 (23a)과 (23b)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6)과 (7)의 예들 사이에도 해당된다.

9) 국어에서 이동한 요소가 결속을 새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련논의 J.-S. Lee 2007, 2008a, 2010b, 2012 참고). 여기서 우측기저생성일 때 흔적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정훈 (2011)은 문제의 구문에 대하여 우측기저생성 분석을 옹호하였다. 그가 SVO 가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고려한 예들을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으나, 그 중 하나를 여기서 소개하고 간략히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i) 철수는 한 여자를 만났다 아주 예쁜.

아마 아래와 같이 형용사 다음의 명사구가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SVO 가설을 배척한 것으로 이해된다:

(ii) *한 여자i [아주 예쁜 ti]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iii) 철수는 [아주 예쁜 한 여자]를 만났다 [아주 예쁜 한 여자]를.

위의 분석은 SVO 가설 하에서 소위 부분삭제(partial deletion)가 적용되어 표면적으로 불연속적인 구성

쌍절분석에서 (23a)는 아래 (26)의 표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출된다:

(26) [철수가 e_i 만나기는 만났어] & [영희를 [철수가 t_e 만나기는 만났어]].

여기서 선행절의 목적어가 공요소로 나타나는데, *영희를*을 역행삭제를 하거나 *pro*를 설정하여 (일종의 역대명사화)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 중 아래에 하나의 치명적인 반례를 든다 (자세한 논의는 J.-S. Lee 2009, 2011b, 2012 참고). 선행절의 목적어나 주어는 적어도 위와 같은 등위접속구문에서 실제로는 역행삭제를 거부한다:

- (27) a.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영희를 만났어.
 b.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영희를 만났어.
 c.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그리고) 철수가 순희도 만났어.
 d.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그리고) 철수가 순희도 만났어.

마찬가지로 역대명사화도 일어날 수 없다:

- (28) a. *철수가 그녀를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영희를 만났어.
 b.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그녀를 만났어.
 c. *그가 영희를 만났어. (그리고) 철수가 순희도 만났어.
 d.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그리고) 그가 순희도 만났어.

따라서 (26)의 선행절 공요소는 *pro*도 될 수 없다. 요컨대, 쌍절분석에서는 이 공요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불분명하다.^{10) 11)}

소가 유도되는 것으로 의도 되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차후 연구로 미룬다.

10) 이 지적은 이정훈 (2011)에서 설정된 공요소에도 해당된다.

11) 변외의 논의를 위해 잠깐 김유진 (2009:(13, 14))이 보고하는 녹취된 실자로 중 일부를 소개한다:

(i) a. 하긴 좀 께일 때가 됐죠, 다른 거 해보십시오 그럼 (그러면).

b. 아,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그러는데).

김유진은 위와 같은 예들을 도치구문으로 간주하였으며, 후치된 요소들이 (여기서, *그럼*, *근데*) 별도의 후속절의 성분이라는 분석에 반대하였다 (각주 2). 이들 요소들이 주로 그 앞에 오는 문장 요소들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달리 말하면, 아래와 같은 쌍절분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ii) a. 다른 거 해보십시오. 그럼 (그러면) [다른 거 해보십시오].

b.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그러는데)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필자는 달리, 위의 (i)의 예에서 문말에 나타나는 *그럼*, *근데*와 같은 요소들은 문맥상 전이(transition)를

위 (23b,c)의 자료도 진성 수의성을 예시해 주는 추가 자료이다:

- (23) b. 철수가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 c. 철수가 만났어 영화를 만나기는.

먼저 SVO 가설 하에서 위 (23b)의 예는 아래 (29)에서처럼 도출될 것이다.

- (29) a. 영화를 만나-영화
- b. 만났어 영화를 만나-영화
- c.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만나-영화
- d. 철수가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만나-영화

위의 도출에서 목적어 *영화를*은 동사 *만나*의 Spec, VP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이 다시 상위 핵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예, Asp, Mood) 그 결과 동사복합체 *만났어*가 형태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만나*기는 더 상위의 Foc 핵으로 이동하여 표면어순을 얻게 된다. 동 가설 하에서 위 (23c)의 예는 아래 (30)에서처럼 도출될 것이다.

- (30) a. 영화를 만나-영화
- b. 만났어 영화를 만나-영화
- c.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 만나-영화
- d. 철수가 [만났어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 t-t]

위의 도출에서 목적어 *영화를*은 동사 *만나*의 Spec, VP에 머물러 있으며 *만나*가 Mood 핵 까지 상승하여 동사복합체 *만났어*가 형성된 다음, 더 상위의 Foc 핵으로 이동하여 *만나*기는 이 되는데, [*만났어 영화를*]이 Spec, FocP 자리로 동반이동하여 표면어순을 얻게 된다. 이제 는 SOV 가설 하에서는 위의 (23b,c)의 두 표면 어순을 유도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논의에 추가하지 않겠다.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은 전형적으로 문두에 오며 또 문맥의 전이를 나타내는데 동일한 선형문장을 반복할 리도 없다는 점에서 아래에서처럼 절 전체가 도치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래 예문의 추가된 괄호는 필자의 덧붙임):

- (iii) a. (하긴 좀 억울 때가 됐죠,) [다른 거 해보십시오]_i 그럼 (그러면) t_i.
- b. (아,)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_i 근데 (그런데) t_i.

그리고 단일절 분석의 우향이동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이동이 적용되어 위 문두 요소들이 문미로 이동 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 부사 성격의 이들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가지 흥미있는 점은 (23c)의 예에서 Foc [+EPP] 자질이 Spec, FocP로 이동하는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사복합체 만나기_는이 Foc 핵으로 이동하여 만족된다는 것이다. 이를 핵상승(head-raising)에 의한 자질 만족으로 기술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어느 핵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14e)에서처럼 지정어상승, (15e)에서처럼 지정어동반이동, 그리고 (30e)에서처럼 핵상승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최소주의 틀 내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더 요청된다. 제 6 장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5. 진성 수의성: 추가 자료

이 장에서는 국어에서 진성 수의성을 보이는 다른 추가 자료를 새로이 제시하고 논의한다. 먼저 다음 예를 살펴보자:

- (31) a. 누가 너는 [누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말했니?
 b. [누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너는 [누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말했니?
 (32) a. 누구를 [너는 [영화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b. [영화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너는 [영화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위의 (31a, 32a)에서는 Spec, FocP의 위치로 의문사구(wh-phrase)가 단독이동한 것이며, (31b, 32b)에서는 의문사절(wh-clause) 전체가 동반이동한 것이다. (사소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의 주절의 2 인칭 주어 너_는을 다른 3 인칭 주어 찰수_는으로 바꿀 수도 있다.) 모두 표면상의 어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진성 수의성을 보여준다. 다시 Foc 핵의 [+EPP] 자질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만족되는 것을 본다.¹²⁾

다음 추가 자료를 살펴보자:

- (33) a. 너는 [소설을 무엇을] 읽었니?
 b. 소설을 너는 무엇을 읽었니?
 c. 소설을 무엇을 너는 읽었니?
 d. 너는 무엇을 읽었니 \ 소설을? \
 e. 무엇을 너는 읽었니 \ 소설을? \
 ('너는 무슨 소설을 읽었니?' 'What novel did you read?')

12) 동일한 진성 수의성이 Afrikaans, Basque, Imbabura Quechua, Bangla, Marathi, Kashmiri 등의 다른 언어들의 해당 구문에서도 나타난다 (B&R 및 여기에 소개된 문헌 참고).

먼저 (33a)에서 괄호로 표시한 것처럼 소설과 무엇'what'이 함께 하나의 중복어(doublet)를 형성하여 'what novel'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33b)에서처럼 소설을의 좌향 뒤섞기에 의해 서로 분리되거나, (33c)에서처럼 동반이동을 하여, 또는 (33d,e)에서처럼 소설을이 맨 우측에 남아, 각각 어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차이가 없는 자유변이를 보이고 있다.¹³⁾

여기서 (33b)와 (33c)를 보면, SVO 가설하에서, Foc의 [+EPP] 자질을 각각 지정어상승과 지정어동반이동으로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B&R (2006:(28))가 논의한 Russian의 유사한 예에서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¹⁴⁾

- (34) a. C'ju ty cital knigu?
 'whose you read book?'
 *Whose did you read book?
- b. C'ju knigu ty cital?
 'whose book you read?'
 Whose book did you read?

SVO 가설하에서 (33d,e)의 도출은 설명을 더 요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엇을what'이 좌향이동한 것이나, 이 이동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⁵⁾

13) 여기서 (33d)의 구문은 다음 (i)의 분리의문문(split question)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33d)와 비교하여 이 분리의문문은 말미의 억양이 반대로 상승한 것으로 서로 의미가 다른 별도의 구문이다 (Ha 2010, J.-S. Lee 2011c의 논의 참고):

(i) 너는 무엇을 읽었니 \ 소설을? / 'What did you read? A novel?'

J.-S. Lee (2011c)는 위의 분리구문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아래 (36)의 도출과정과 비교):

(ii) 너는 무엇을 읽었니 \ [무엇을 소설을]? /

또 하나 흥미로운 다른 차이는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s)에서 나타난다:

(iii) a. *너는 무엇을 읽었니 \ 그 소설을? \ *What the novel did you read?'

b. 너는 무엇을 읽었니 \ 그 소설을? / 'What did you read? The novel?'

여기서 논의하는 구문인 (iii)a)는 한정명사구를 취할 수 없으나, 분리의문문인 (iii)b)는 한정명사구를 취할 수 있다.

14) 여기서 영어와 러시아어 간의 차이가 관찰되는데, 영어에서는 좌향분지조건(Left Branch Condition)의 위반이 허용이 안 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 가지 대체 방안은, B&R와 Richards (2008)를 따라, 영어의 경우 'whose book'에서 whose는 Det 핵이어서 Spec으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러시아어에서의 그 대응 요소는 DP/QP의 지위를 가져 Spec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도 러시아어와 같이 행동한다는 점에서, 본문의 논의는 이와 관련된 구조를 비명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15) 이 예는 분리의문문인 경우는 좋은 문장이다 (관련 논의, J.-S. Lee 2011c 참고):

(i) 너는 무엇을 \ 소설을 읽었니? /

(35) *무엇을_i 너는 [소설을 t_i] 읽었니?

대표적으로 (33d)의 도출을 아래에 예시한다:

- (36) a. 너는 읽었니 [소설을 무엇을]?
 b. 너는 읽었니 무엇을 소설을 무엇을?
 c. 너는 무엇을 읽었니 무엇을 소설을 무엇을?
 d. 너는 무엇을 읽었니 \ / 소설을? \ /

위의 (36)에서 무엇을_i what_i가 (35)에서와는 달리 좌향이동해야 하는 것은 국어에서 의문사, 예를 들어, 무엇_i what_i는 의문동사복합체 뒤에 나올 수 없는 (이익섭 · 임홍빈 1987: 20) 독립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37) *너는 읽었니 \ / 무엇을? \ / (비교: 너는 무엇을 읽었니? \ /)

현재의 논의의 목적상, (37)이 나쁜 이유가 의문사가 문말에 오게 되어 상승곡선을 그리는 바로 앞의 의문동사복합체와 올바른 억양 곡선을 이룰 수 없는데 있다고 보겠다. 반면 (33b,c)에서는 이러한 억양 곡선 형성에 문제가 없어서 최소성(minimality) 조건에 따라 소설을이 좌향이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견하여 (33a,b,c)의 예들은 SOV 가설하에서도 쉽사리 도출할 수 있어 보이지만, (33d,e)의 예들이나 (1)의 예들에 상응하는 아래의 자유변이형들을 고려하면 이 가설은, 앞의 (1, 23) 관련 논의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 (38) a. 너는 소설을 무엇을 읽기는 읽었니?
 b. 너는 소설을 무엇을 읽었니 읽기는?
 c. 소설을 너는 무엇을 읽기는 읽었니?
 d. 소설을 무엇을 너는 읽었니 읽기는?
 ('너는 무슨 소설을 읽기는 읽었니?'
 'What novel did you read?')

6. 통사적 미결정성 및 국어 구구조 방향성

본 논문에서 다루는 진성 수의성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는 수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최

소주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국어 자료를 통하여 관찰한 것은 어느 한 핵의 (예, Foc) [+EPP] 자질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하나 이상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지정어상승, 지정어동반이동, 및 핵상승 등으로 이름한 것들이다. 자연 이러한 이동들과 결부된 이동요소들의 크기가 달라 어순상의 자유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문법(grammar)이 과연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 해결의 큰 방향을 Biberauer and Richards (2006), Richards (2008)나 Yang (2010) 등이 허용하는 통사적 미결정성에서 찾고자 한다. 요지는 어떤 핵의 면결자질(EF)이 만족되는 한 그 만족 시키는 방법은 하나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3)과 같은 경제성 원리에 따라 배변집합 요소들이 배열되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되면 하나의 PF 표시(representation)로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1:1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PF와 LF 간의 관계는 생성문법의 Y-모형에서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어서, 이들 간의 관계가 반드시 1:1인 것은 아니다. 하나의 PF 표시가 하나 이상의 LF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중의성을 지닌 문장을 고려하면 곧 드러난다.¹⁶⁾ 그래서 PF:LF가 1:다(多)라면, 그 역으로 LF:PF도 1:다일 가능성이 문법에 논리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 국어에서 의미가 동일하지만 어순이 다른 경우들, 즉 진성 수의성의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제 3.1. 절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의 최소주의는 UG가 극소화되어 미결정성을 지니게 되었고 (Chomsky 2005 및 후속 연구), 이 UG에서 별도로 독립된 원리들도 어떤 요소들이나 운용들이 반드시 접합부 해석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잉여적이거나 동기가 없는 것들은 접합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했다 (Chomsky 2000). 한편 운용과 표시에 관련한 두 가지 대표적인 경제성 원리인 최후수단(Last Resort)과 완전해석(Full Interpretation) 원리가 함께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하나의 배변집합 요소들이 배열되어 생기는 자유어순변이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자유변이가 존재한다면 두 원리의 작용 범위 한계를 좁히고 진성 수의성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초기 최소주의에서 (Chomsky 1995) 연산체계는 기본적으로 운용상의 비용(cost)을 고려하여 하나의 도출만을 허용하였는데, 비용계산은 형식적(formal) 경제성 원리에 입각하여 도출 간의 전면적인(global)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 최소운용단계(fewest steps)나 운용의 언어일반성 여부 등). 그러나 이후 국면(phase) 개념이 도입되면서 (Chomsky 2000, 2001) 이 비용계산은 다시 국지적(local)으로 결정된 단일 순환 체계에서 재고되었다. 이제 엄격하게 국지적이며 강력최소주의적인 체계가 의존하는 것은 최후수단과 완전해석이라는 경제성 원리뿐이기 때문에, 형식적 체계 내적인 경제성 및 도출상의 최적성의 개념 등은 더 세부적으로 정립할 수 없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최후수단과 완전해석 원리는 어떤 자질 F가 곧바로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요구하고 그 방법은 명시하지는 않는

16) 다음 문장에서 someone > must 또는 must > someone의 두 해석이 가능하다:

(i) Someone must be someone in the garden. (B&R 2006:(4a))

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결정성에 따라서 하나의 XP나 이 XP를 포함하는 YP가 (탐침-목표-일치 체계에서) 적법하게 F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XP나 YP를 이동시키는 운용들은 그 비용이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핵의 [+EPP] 자질이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만족되고 그 결과 자유어순변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이동과 동반이동에 있어서의 규모의 차이가 허용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강력최소주의 테제에 부합하는 극소화된 보편문법이나 이로부터 독립한 원리들에 매개변인이 들어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선형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핵매개변인의 효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 앞의 국어의 논의에서 한 핵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는데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어의 기저구조가 SVO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Richards (2008)은 통사부에서 핵어선과 핵어말 어순이 공존하다가 선형화가 통사부-PF 접합부에서 일어날 때 핵어선 또는 핵어말 어순 중에서 하나를 지우고 다른 하나를 일괄적으로 취한다고 주장 했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전형적인 SOV 언어로 알려진 국어의 경우 통사부에서 SVO와 SOV 두 어순이 공존하다가 PF에서 SVO 어순을 지우고 SOV의 어순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경험적으로 보아도 국어의 어순은 핵어말과 핵어선 어순이 공존하여 그의 제안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문의 논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SOV 기저 어순으로는 자유 어순변이를 유도해 낼 수 없으므로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SVO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두 어순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되므로 주장과는 달리 그의 제안은 신빙성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대신 경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국어의 선형화에 대해서는 Kayne (1994) 식의 (범어적인) 지정어-핵-보어의 SVO 어순가설에 LCA와 같은 선형화공리를 적용하는 체제를 옹호하게 되었다 (특히 Kayne 2011의 관련 논의 참고). 아울러 국어의 기저어순이 왜 SOV가 아닌지 분명하게 논증하였다.

7. 마무리

본 논문은 먼저 최근의 강력최소주의 틀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진성 수의성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으며 극소화된 UG와 이로부터 독립한 원리들에서 추방당한 매개변인 중 핵매개변인 효과가 달리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한 핵이 지닌 [+EPP] 자질이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유어순변이를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최근 발전된 최소주의에 입각한 본 논문의 결과는 국어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의심 없이 가정해온 핵어말인 SOV 기저어순가설보다 핵어선인 SVO 기저어순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SVO 가설 하에서 국어의 어순변이는 LCA와 같은 선형화

기제에 의해 합당하게 도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Kayne (1994, 2011)의 범어적인 지정어-핵-보어 가설을 지지하였고 핵매개변인을 연산체계에서 성공적으로 제거하는데 일조 하였다. 국어에서, 논문의 결과에 수반되는 다른 변화의 영역 중의 하나는 동사 형태론이다. 그동안 핵어말 구조에서 동사의 굴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조상 모호하게 몇 가지 다른 방법을 허용하였다 (최기용 2003의 관련 논의 참고). 핵어선 구조에서 동사의 굴절은 분명히 더욱 제한된 길을 제시해 준다. 이 밖에도 국어 통사론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재접근을 모색하도록 종용하게 되었다. 필자가 다루어온 일부 현상들을 열거하면 장거리 대용사 결속, 부정극어 분포, 내포절 술어삭제, 우향전위(Right Dislocation), 좌/우측마디상승(Left/Right Node Raising), 분리의문문, 동사반복, 극성 동사반복 등인데, 이들 현상에 대한 보다 더 국지적이며 구조적인 재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도 재조명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논문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Biberauer and Richards (2006)의 통찰을 통해 국어의 진성 수의성을 조명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김대익. (2011). 어순공리와 핵매개변인: 고대영어 하위절을 중심으로. *언어학* 19(4), 173-189.
- 김용하. (2011). 어순공리와 매개변인. *현대문법연구* 66, 223-241.
- 김유진. (2009). 대화의 도치구문에 나타나는 첨가기능의 효과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25(3), 511-527.
- 이익섭·임홍빈. (1987).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정식. (2008). 국어 동사반복구문 IV. *생성문법연구* 18(4), 635-655.
- 이정식. (2010가). 술어반복 선택의문문. *언어학* 18(2), 89-114.
- 이정식. (2010나). 국어 연쇄동사 반복 현상. *생성문법연구* 20(3), 445-471.
- 이정식. (2010다). 국어 내포절 술어 생략 부재 현상. *언어학* 18(4), 125-145.
- 이정훈. (2011). 후보층 구문의 구조와 Ω 그리고 빈칸. *현대문법연구* 64, 95-116.
- 최기용. (2003). 한국어와 핵어동: 종결형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13(1), 119-142.
- Berwick, R., & Chomsky, N. (2008). *The biolinguistic program: The current state of its evolution and development*. Ms., MIT.
- Biberauer, T., & Richards, M. (2006). True optionality: When the grammar doesn't mind. In C. Boeckx (Ed.), *Minimalist essays* (pp. 35-67). Amsterdam: Benjamins.
- Biberauer, T., Holmberg, A., & Roberts, I. (2010). *A syntactic universal and its*

- consequences*. Ms., University of Cambridge/Stellenbosch, Newcastl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ambridge.
- Boeckx, C. (2008). *Approaching parameters from below*. Ms., Harvard University.
- Borer, H. (1984). *Parametric syntax: Case studies in Semitic and Romance languages*.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In R. Martin, D. Michaels, &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m in honor of Howard Lasnik* (pp. 89-156).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3 (pp. 104-11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2005a). *On phases*. Ms., MIT.
- Chomsky, N. (2005b). Three factors in language design. *Linguistic Inquiry*, 36, 1-22.
- Chomsky, N. (2006). *Approaching UG from below*. Ms., MIT.
- Chung, D. (2009). An elliptical coordination analysis of the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4), 1-23.
- Chung, D. (2010). Replies to Lee (2009): In defence of a double clause approach to the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 *Studies in Modern Grammar*, 61, 167-196.
- Epstein, S., Groat, D., Kawashima, R., & Kitahara, H. (1998). *A derivational approach to syntactic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 S. (2010). Split questions in Korean: PF-deletion vs. LF-copy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0(2), 671-690.
- Hauser, M., Chomsky, N., & Fitch, W. (2002). The faculty of language: What is it, who has it, and how did it evolve? *Science*, 298, 1569-1579.
- Hornstein, N. (2009). *A theory of syntax: Minimal operations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kui, N., & Takano, Y. (1998). Symmetry in syntax: Merge and demerg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7, 27-86.
- Jo, J.-M. (2004). *Grammatical effects of topic and focus inform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ang, M.-Y.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ayne, R. (2011). Why are there no directionality parameter? In M. B. Washburn, K. McKinney-Bock, E. Varis, A. Sawyer, & B. Tomaszewicz (Eds.),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28 (pp. 1-23). Somerville: Cascadilla Press.
- Koopman, H. (200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syntactic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6(4), 601-635.
- Lee, D.-W. (2003). Two types of object and object shift.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3(4), 565-596.
- Lee, J.-S. (2007). Deriving SOV from SVO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3), 1-20.
- Lee, J.-S. (2008a). Non-vacuous object movement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3(2), 229-250.
- Lee, J.-S. (2008b). Notes on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2), 47-68.
- Lee, J.-S. (2008c). Minimizing Spell-Out material in the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52, 213-240.
- Lee, J.-S. (2008d). Externalization out of pha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4), 87-110.
- Lee, J.-S. (2009). A verb-Initial single clause analysis to right-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57, 127-157.
- Lee, J.-S. (2010a). Arguing for the SVO hypothesis in Korean: Evidence from LNR and RNR. *Studies in Linguistics*, 17, 235-253.
- Lee, J.-S. (2010b). Why only predicate-final in embedded clauses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61, 99-138.
- Lee, J.-S. (2010c). Split object sharing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5(4), 1053-1075.
- Lee, J.-S. (2011a). Layered VP and inner aspect. *Studies in Modern Grammar*, 65, 45-72.
- Lee, J.-S. (2011b). Some loopholes of the double clause approach to the right dislocation construction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63, 113-146.
- Lee, J.-S. (2011c). Rethinking split question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1(3), 409-437.

- Lee, J.-S. (2012). Speculations on typological variation from a third factor perspectiv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2(1), 77-112.
- Lee, W., & Cho, S. (2003). Argument scrambling and object shift.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3, 39-59.
- Richards, M. (2008). Two kinds of variation in a minimalist system. In F. Heck, G. Müller, & J. Trommer (Eds.), *Varieties of competition. Linguistische Arbeits Berichte*, 87 (pp.133-162). Universität Leibzig.
- Yang, D.-W. (2010). The determinism fallacy: Ambiguity of interpretive effect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5(4), 969-988.
- Zwart, J.-W. (1997). *Morphosyntax of verb movement: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syntax of Dutch*. Dordrecht: Kluwer.

이정식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 850-6873
이메일: jslee@wku.ac.kr

Received on April 12,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y 18, 2012

Accepted on May 18, 2012